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8월 31일 수요일 제 541 호

게시판



노년기 생활 아카데미 서울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정성욱)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노년기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니어 플랜 아카데미(사진)'를 진행하고 있다. (02)929-7950

전문간병교육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립원(이사장 무구) 부설 연꽃간병회에서 전문 간병교육을 받고 간병인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02)363-7884

경인불교대학 개강 인천 수미정사·경인불교대학(학장 종언)에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문반과 주·야간반, 경전대학원 등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032)427-8400

나눔 사랑 일일치집 경기 일산노인복지관(관장 능인)은 9월 10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사랑 일일 치집'을 마련한다. (031)919-8677

늦시간 어르신 모십니다 서울 육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인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02)2282-1100

후원품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봉사원 파견센터(원장 나태선)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보급할 가전제품과 책상·의자·서랍장 등의 사무용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02)2202-36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요	사	체	공		
로	광	주	리	장	수
원		권			리
야	상	곡	사	법	부
화		광			영
기	명	식	배	서	이
		연	경	칩	



'직지삼체요절'이 2000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매년 청주에서 열고 있는 '직지사 서사시 및 기념식'. 매년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로도 흥성하게 마련된다. 사진은 2004년 '오페라 직지' 공연 모습.

청명한 가을 문화에 빠져보자

전국 역사·문화 축제 풍성... '직지 퍼포먼스' 등 눈길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 말복과 처서가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다. 김병권(서울 성동구 성수동·33)씨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지난 8월은 김씨에게 고역이었다. 휴가철을 맞아 봄비는 고추도며 바닷가, 계곡에다 더운 날씨가 김씨의 불쾌지수는 높아만 갔다.

9월 경 가을 여행을 계획 중인 김씨는 들떠 있다. 벌써 하늘이 청명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주말여행 계획을 짜느라 바쁘다.

조금 한산해진 들녘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월은 민족 명절인 추석도 끼어있어 이래저래 축제분위기가. 아직 따가운 햇살은 남아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행사가 마련돼 있어 마음만은 낙엽이다.

특히 역사 문화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청주시가 준비한 '2005 유네스코 직지삼체 서사시 및 기념식'은 14세기 흥덕사에서 만들

어진 '직지삼체요절'이 2001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직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학술적이지만은 않다. '직지' 퍼포먼스와 금속활자 체험, 퓨전음악가 양방언씨의 공연 등이 마련돼 흥미 요소는 곳곳에 있다.

또 부산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 백제 교류의 현상이었던 인천 능해대축제 등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행사가 많이 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 축제도 '입맛 따라' 골라 갈 수 있다. 금산 특산품인 인삼을 내세운 '인삼축제 금산', 가을 생선의 향연으로 펼쳐질 '마산 어시장 축제'가 그 예다.

이밖에도 가을 코스모스 축제, 문화제, 음악·예술제 등이 각 지역별로 준비돼 있어 9월은 즐겁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부산 조선통신사행렬재현 모습. 사진제공=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해마다 새로운 '백제왕'을 뽑는 인천 능해대축제.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축제위원회

지역	행사명	일시	주요행사	연락처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9.30~10.2	동명제, 근구수왕 즉위식, 송파초등-방이동 거리행렬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 (02)410-3410
경기	구리 코스모스축제	9.10~11	국악한마당 가을음악회, 체험마당	축제추진위 (031)550-2065
경남	마산 어시장 축제	9.1~4	갈매기, 풍어제, 어시장 체험	마산어시장축제위 (055)221-0671
경북	청량문화제	9.22~25	전통 한시백일장, 전통혼례 재현, 공민왕제	봉화문화원 (054)679-6391
광주	임방울 국악제	9.26~28	국악대전,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재단 (062)940-9731
부산	조선통신사행렬재현	9.6~10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 및 행렬 재현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 (051)888-6965
인천	능해대축제	9.9~11	백제왕 선발대회, 씨름대회, 사생대회, 마라톤	연수구청 축제위 (032) 810-7761-4
	합세덕 연극제	9.1~6	인천 출신 극작가 합세덕을 기리는 극단 및 대학 동아리 연극 공연	연극제추진위 (02)866-3927
충남	인삼축제 금산	9.2~11	인삼캐기, 약초요리 만들기, 인삼 심포지엄, 만화공모전	금산인삼 집행위 (041)750-2391
충북	유네스코 직지삼체 서사시 및 기념식	9.1~4	직지삼체 서사시, 오페라 '직지' 공연, 씨이로 대화, 학술제	청주 직지축제추진위 (043)220-6829
	설성문화제	9.27~30	풍물경연, 가장행렬, 거북놀이(지신밧기)와 유사), 음성 청령고추축제	음성문화원 (043)871-3839
전남	꽃무릇 축제	9.10~11	국악한마당, 오케스트라·사물 공연, 스포츠댄스, 사진전	꽃무릇축제추진위 (061)320-3617
제주	서귀포 칠십리축제	9.28~10.3	최영장군 목욕토크, 바다체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064)735-3548
	이중설 예술제	9.8~9	설치미술, 이중설 작품 퍼포먼스	서귀포시 문화정보실 (064)735-3548

불교TV, 현각 스님 '금강경 영어강의' 방영

<만행, 허버드에서 화제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의 <금강경> 영어 강의를 TV를 통해 볼 수 있다.

불교TV는 8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12주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이란 제목으로 현각 스님의 <금강경> 영어 강의를 방영한다. <금강경>의 영문 표기는 '다이아몬드 수트라(Diamond Sutra)'.

현각 스님은 "영어에 더 익숙한 교포들과 외국인들에게 불교 교리



(04:00)·일요일(01:35)에 재방송한다. 인터넷(www.btn.co.kr)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를 전파하고 싶다'며 '대표적인 불교경전인 <금강경>을 통해 공(空)사상을 간결하고 명확한 화법으로 구체적으로 강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회 강의를 50분으로 화계사에서 녹화했으며 내국인을 위해 한글 자막처리도 했다.

현각 스님의 영어법문은 매주 월요일 (08:20/13:00/19:30) 방송하며 수(21:10)·토(04:00)·일요일(01:35)에 재방송한다. 인터넷(www.btn.co.kr)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노병철 기자

웃고 놀라고 사랑에 빠지는 감쪽한 자동차

허비: 첫 시동을 걸다 감독: 안젤라 로빈슨 출연: 린제이 로한, 맷 딜런 상영시간: 101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피마 자동차 '봉봉'처럼 감정을 가진 차. 그리고 '권토중래(權土重來)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재기한다는 뜻'의 스토리. 이것이 영화 '허비: 첫 시동을 걸다'의 감동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신형 뉴비틀 폴크스바겐을 보면 왼쪽 헤드라이트를 닫으며 윈크를 던지고 안테나를 앞뒤로 흔들며 환호를 보내며 사랑을 표현하고 공포 영화를 보면 놀라 헤드라이트를 닫아버리는 살아 숨 쉬는 차 허비.

단계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허비의 변신은 이 영화 플롯의 기승전결과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관객을 집중적으로 흥분시킨다. 자동차 경주의 명가(名家) 페이튼 집안의 막내딸 매기. 대학 시절 경주 도중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매기는 아버지 임명에 따라 경주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다. 대학 졸업 기념으로 아버지가 사준 선물은 40년도 넘는 폴크스바겐 '허비'. 폐차장에 오지

처분되기만을 기다리던 허비와 자신의 새 주인 매기는 서로의 비범한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자동차 경주의 최고봉 나스카(Nasca) 경주에 출전하는데...

53번 번호를 달고 부활한 허비.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주와 더불어 때로는 중매쟁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돕기도 하며,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영화적 소재는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미와 흥미를 안겨준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무심한 붓끝에 깨달음이 깃드니

해성 스님 금니 사경전

해성 스님의 두 번째 금니 사경전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모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금니·은니 <반야심경>, 병풍 <반야심경>, 금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금니 나태(사찰이나 고궁 문 밑에 조성되어 있는 도깨비 문양)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해성 스님이 <반야심경> 한 작품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무려 18시간. 먹으로 쓰는 사경과 달리 스님의 금니 사경은 두 번의 덧칠 과정을 거친다. 스님은 내후년 경 '반야심경' '다라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경전을 준비하고 있다.

해성 스님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 상호를 외우기만 해도 공덕이 크다고 했는데 불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을 꾸준히 사경하면 그 공덕이 대단하다"며 사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금니사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성 스님은 무공 스님을 은사로 1989년 동화사에서 출가했다. (02)739-1666



해성 스님이 쓴 금니 반야심경.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공연

나비춤·바라춤·승무 한무대에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개막공연

법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채상욱 그리고 서울예술단 무용팀 21명이 펼치는 '기원(祈願)'을 만나자.

9월 4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막하는 제2회 서울 국제무용콩쿠르의 개막축하공연으로 한국무용 '기원의 장'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기원의 장'은 일명 해탈무라 불리우는 나비춤, 진리를 전하겠다는 서원과 정법을 지키는 호법무인 바라춤, 승속을 넘나드는 승무, 복두절정의 기원을 담은 칠고무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무용 '기원의 장' 이외에도 일본 민족무용가 후지마 람코의 '모미지가사', 북한 무용가 이미남의 '아리랑 환상무', 일본 무용가 미타 노리야키의 난릉왕 등도 개막축하무대를 장식한다.

아시아 무용 올림픽이라 불리는 서울 국제무용콩쿠르는 15개국 90여명의 무용수들이 참가해 발레, 컨템포러리무용, 민족무용 등 3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친다. (02)588-7570

김지연 기자



호법무라 불리우는 '바라춤'을 선보이는 능화 스님.

방송 프로그램

BBS 30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31일 21:05 영화음악실

1일 07:05 아침저널

2일 09:05 행복한 미소

3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4일 10:00 라디오법회

Bn 29일 21:10 TV법회

30일 02:40 불교TV스페셜

31일 15:50 열린마당

1일 17:30 산중대담

2일 20:30 명상음악산책

3일 08:20 불교TV메디컬

4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박진선의 트롯시네(9월 1일 19:00~20: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란히 밀려오는 저녁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9월 4일 21:45~22:45) 연애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미있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성불도 놀이판

성불도 놀이판은 조선 서산대사가 처음 만든 놀이로, 마하불에서는 불교 전통 놀이인 성불도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불도 놀이판'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마하불에서 판매하는 놀이판은 현재 여러 사찰에 전하고 있는 성불도 놀이판을 토대로 잘못된 기록된 부분을 보완해 만들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불패를 옮기는 게임으로, 방법이 간단해 남녀노소 불자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미리 마련해 다가오는 추석,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친목을 다지기에 좋다. 가격 2만 2000원. (02)2004-8218-9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